

## 첼시 UECL 우승 이끌고 인사하는 마레스카 감독

등록 2025.05.29 09:32:49



[브로츠와프=AP/뉴스시스] 첼시의 엔초 마레스카 감독이 28일(현지 시간) 폴란드 브로츠와프의 스타디온 미에이스키에서 열린 2024-25 유럽축구연맹(UEFA) 유로파 콘퍼런스리그(UEL) 정상에 오른 후 트로피 옆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. 첼시는 결승전에서 레알 베티스(스페인)를 4-1로 꺾고 우승, UEFA가 주관한 모든 대회(챔피언스리그, 유로파리그, 슈퍼컵, 위너스컵, UECL) 우승컵을 거머쥔 최초의 팀이 됐다. 2025.05.29.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